

# PACKAGING NEWS



##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제285차 이사회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2024 골프 시구 행사
- (사)한국포장협회고문 자문단 모임
- 동원시스템즈-에이치투 재활용 페트병 사용 활성화 협약

## 업계

- 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유예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 투자지원 전담반 출범
- 식약처 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 가능
- 한국환경공단 국내 최초 무색 페트병 역회수 재활용사업 박차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
- (사)한국공업포장협회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제28기 정기총회 개최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제5회 정기총회 개최
- 식품업계 환경부 택배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발표 '환영'
- CJ대한통운-태림포장 물류 운영·포장재 공급 MOU 체결

## (사)한국포장협회

### 제285차 이사회 개최

신임 이사진 구성 등 논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가 지난달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85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김창순 회장 선임 후 첫 번째 이사회로 신임 이사진 구성, 분과위원회, 지역모임 활성화, 2024년 협회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협회는 기존 부회장과 박진철 (주)삼성인크 대표이사, 황정욱 (주)플러스팩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고, 이현철 (주)서일 대표이사, 임재윤 세미산업(주) 전무이사를 이사로, (주)필맥스를 (주)필맥스에이앰피로 교체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각 분과위원회, 지역모임 강화를 통해 협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회원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4년 협회 주요사업인 포장기술관리사통신교육 질적 향상과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한 회원사 홍보 등을 펼치기로 했다.

매년 2회 시행하는 '포장인 포럼'은 오는 5월 22일 회원간 정보교류와 친목 강화의 시간으로 진행



▲ 지난달 12일 (사)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5차 이사회 모습.



할 계획이다. 이날 회원사 가입 신청을 한 (주)유니아니(대표이사 이동현), (주)유후렉소(대표이사 윤섭)에 대한 가입을 승인했고, (주)제이에스팩(대표이사 노민철)은 미비 서류를 보완해 다음 이사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김창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가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간 협력을 확대해 회원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며 “이사님들과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 2024 골프 시구 행사

회원 참여 확대 방안 강구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회장 김보철)가 지난달 27일 2024년 시구회를 가졌다.

시구회에는 김선창, 임경호 고문을 비롯한 회원 20명이 참석해 동우회 참여 확대를 통한 협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보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우회의 운영 시간조정과 참가 인원을 현재보다 늘릴수 있도록 팀수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가 지난달 27일 열린 2024년 시구회 후 기념촬영을 했다.

조정이 가능한지 컨트리클럽 측과 협의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창 회장은 격려사에서 골프를 즐겁게 치고 건강과 실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원 간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임경호 전임 협회장은 “협회가 더욱 발전되고 회원간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순 신임회장은 “협회 사업을 다양화하고 회원간 교류의 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해 온 포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수현 태화정밀 대표가 우승을, 룡기스트 이현철 (주)서일 대표, 니어리스트 임준우 (주)제이에셀 이사가 차지했다.

4월 모임은 24일에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접수한다.

## (사)한국포장협회

### 고문 자문단 모임

한용교 초대회장 주관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는 지난달 22일 한용교 초대회장의 주관으로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열빈에서 모임을 가졌다.



▲ (사)한국포장협회는 지난달 22일 한용교 초대회장의 주관으로 고문 자문단 모임을 가졌다.





협회는 회장의 이 취임식을 기점으로 전현직 회장과 협회 발전에 노력해 주신 자문위원, 회장단 등을 초대해 협회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져왔으며 이 모임은 한용교 초대 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돼 왔다. 이날 모임에는 한용교 명예회장, 김선창, 고문, 임경호 고문을 비롯해 자문위원, 감사, 한국포장기술평의회 전현직 회장, 상근부회장, 윤용만 윤지양행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예전 활동사항과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회원들이 협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행사 때마다 고문, 자문위원을 초청하고 있으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 동원시스템즈-에이치투

## 재활용 페트병 사용 활성화 협약

페페트병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로 식품용기 생산

동원시스템즈(조점근·서범원 공동대표)가 페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ESG 경영 확대에 나섰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달 5일 서울시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재활용업체 에이치투와 재활용 페트병(rPET)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원시스템즈는 에이치투로부터 페페트병에서 추출한 고품질의 재생 원료(rPET 칩)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동원시스템즈는 이를 음료병 등 각종 식품 용기 생산에 활용해 자원 순환 및 탄소배출 저감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 원료 사용



▲ 서범원 동원시스템즈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와 김영민 에이치투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동원산업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회원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남경

1977년 4월 5일 46주년

대성포장산업(주)

1985년 4월 20일 38주년

동일알루미늄(주)

1989년 4월 25일 34주년

디아이씨(주)

1987년 4월 20일 36주년

(주)디엘피

2000년 4월 1일 23주년

디엘에프엔씨(주)

2020년 4월 1일 3주년

삼영화학공업(주)

1958년 4월 10일 65주년

(주)신명이노텍

2006년 4월 16일 17주년

(주)신영인크

1996년 4월 1일 27주년

(주)원지

1967년 4월 28일 56주년

코오롱인더스트리(주)

1957년 4월 12일 66주년

(주)태일

2015년 4월 15일 8주년

플레이코리아(유)

2015년 4월 1일 8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유럽으로도 재활용 페트병을 수출할 예정이다.

동원시스템즈 관계자는 “글로벌 종합 포장재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포장재 생산과 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원시스템즈는 포장재 기업 중 최초로 화학적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 기술을 개발해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으며, 산업용 소모품 포장재에 대한 국제재생표준인증인 ‘GRS’ 를 획득하는 등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 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유예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달 7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2022년 4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규칙에 근거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송 포장재(택배) 포장 기준 추진방안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도 마련했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포장재를 회수

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화학 투자지원 전담반 출범

샤힌프로젝트 및 ARC프로젝트 투자 현장 밀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달 8일 울산에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분야 대형 프로젝트인 ‘샤힌’과 ‘ARC’ 프로젝트의 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상의 애로를 밀착 지원한다.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신공정 도입·친환경 전환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모색 중이다. 특히 울산에는 샤힌프로젝트(S-oil, 9조3,000억 원), ARC프로젝트(SK 지오센트릭, 1조8,000억 원)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되어 진행 중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COTC 공정을 최초로 도입하며, ARC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한다.

정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의 적기 준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울산광역시-석유화학협회 합동으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구성해 투자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며, 향후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샤힌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ARC프로젝트는 국내 석화산업에서의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대표 사업인 만큼 TF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그간 기업현장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해 왔으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 및 규제개선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을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 식약처

### 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 가능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8일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플라스틱 7개, 캔 2개, 필름 3개, 종이 3개, 유리 1개, 기타 1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는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QR 코드는 코드 테두리에 양각 또는 촉각돌기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점자, 뚜껑, 절취선, 접합부 등 시각장애인이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 근처에 표시하거나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없을 때에는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하도록 했다.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도 정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QR 규격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QR 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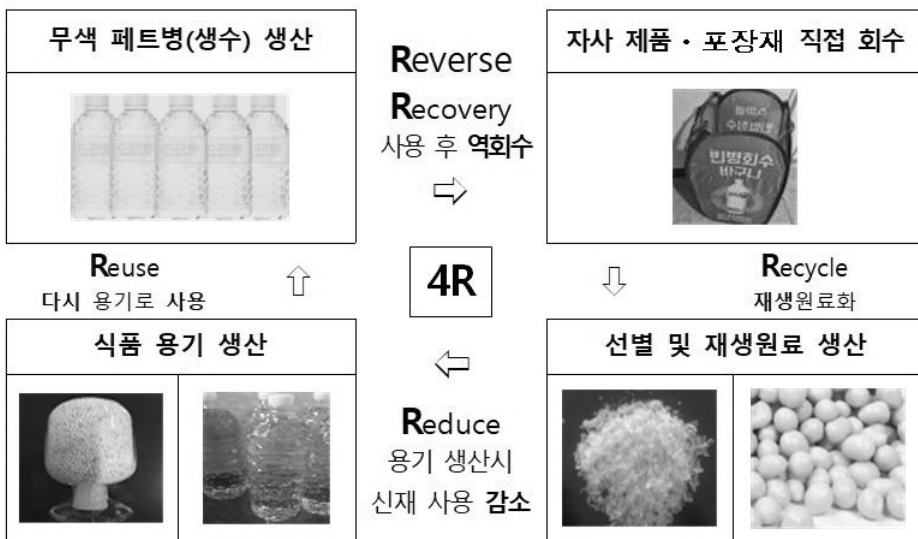
페트병 역회수 재활용사업 박차

생수용기 1087톤 회수...전년비 35% 증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욱)은 지난달 11일 2023년 무색 페트병 역회수 재활용사업 운영실적 발표를 통해 2022년 804톤보다 35.2% 늘어난 버려진 생수 용기 총 1,087톤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색 페트병 역회수 재활용사업은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 확대를 위해 생수 제조사, 페트병 재생원료 생산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범사업이다. 소비자가 사용 후 버린 제품·포장재 폐기물을 제조사가 회수하고 회수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소나무 약 8,500그루의 식재 효과를 거뒀다.

무라벨 생수업체와의 협업사업은 전국에 구축된 업체의 직배송망을 활용한 역회수 방법으로 무색 페트병 수거·운반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고품질 페트병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한 획기적인 방법이다.



▲ 무색 페트병 역회수 및 재활용 흐름도

특히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또는 포장재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재활용업체는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를 다시 생수병으로 만드는 식품용기 사용 시설 인증을 받게 되며, 재생원료는 신재료와 적정 배합되어 다시 생수병으로 생산되는 데 사용된다. 식품용기용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2021년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 2030년까지는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은 국내 생수 제조사,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식품용기용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민·관 역회수 재활용 사업은 재생원료가 사용된 식품용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큰 방식인 만큼, 더욱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

단체 간 정보교류 및 협력 다짐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송경석)는 지난달 27일 (사)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실무담당자 회의를 열었다.



▲ 지난달 27일 열린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실무담당자 회의

이날 회의에는 (사)한국포장협회 오선진 전무이사, (사)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김호동 상임부회장, 노종심 부장, (사)한국공업포장협회 김광수 부장,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정원진 매니저,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이해성 국장,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정병훈 총무, (사)한국포장학회 정유나 실장이 참석해 향후 KPO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PO 총회 결과와 2024년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단체 주요 사업과 추진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단체 간 협력을 도모했다.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오선진 전무이사는 “국내 패키징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각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단체 간 결속을 다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무자회의를 강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사)한국공업포장협회

###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 강연 진행

(사)한국공업포장협회(회장 송경석)는 지난 2월 28일 경기도 동탄 공업포장회관 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 건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승인



▲ 지난 2월 27일 열린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제28기 정기총회'

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이날 송경석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회 및 국내 공업포장 업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총회에 앞서 KSR 인증원 이은승 본부장을 초청, 최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한 특별 강연을 열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 제3대 이사장으로 정철수 일신산업(주)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해 연임하게 됐다.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 제28기 정기총회 개최

제10대 회장에 서병륜 회장 연임



▲ 지난 2월 28일 열린 (사)한국공업포장협회 제28차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 서병륜)는 지난 2월 27일 ‘제28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KPCA는 이날 진행된 제10대 회장 선출 선거에서 서병륜 회장을 선출, 9대에 이어 연임하게 됐다.

KPCA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표준 파렛트·컨테이너로 친환경 세상을 만들어 간다’

는 핵심목표 아래 ▲사용자 중심의 유닛로드시스템 보급 확산으로 산업물류 혁신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회원 서비스 강화 ▲물류표준화 수준의 질적 향상 추진 ▲APSF의 체계적·지속적인 활동 강화 ▲아시아 지역 리더너블 파렛트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APSF시스템 인증제 운영을 위한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23년 APSF 제18차 정기총회를 유치해 아시아 지역 8개국(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고, 유닛로드시스템 핸드북(국문, 영문)을 편찬했으며 영문판의 경우 APSF 초청국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올해는 ▲2024년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및 유닛로드시스템 창의성 공모전 개최 ▲2024년 한국 파렛트 컨테이너 생산 실태조사 ▲사이버 아시아 유닛로드스쿨을 통한 글로벌 ULS 전문 인력 양성 ▲ISO TC51 및 APSF 총회 서울 유치 등을 비롯해 글로벌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으로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에 앞장서 국가 물류 표준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제5회 정기총회 개최

제3대 이사장에 정철수 일신산업(주) 대표이사 선출



▲ 지난 2월 29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회 정기총회 후 기념 촬영을 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은 지난 2월 29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보고·결산 및 손실금처리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총회 의결사항의 이사회 위임안 ▲임원 선출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제2대 이사장직을 역임한 정

철수 일신산업 대표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정철수 이사장과 함께 조합을 이끌어갈 제3기 이사와 감사 20명을 선출했다.

정철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펜데믹 종료 이후 중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전 세계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 기조 지속 등으로 저장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 및 국제협약 진행 과정 등을 잘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2023년 11월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플라스틱 환경시험연구원 운영을 활성화해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확대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의 안정적인 재정자립 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무림

## 폐의류 활용한 업사이클링 종이 '네오코튼TMB' 개발

LG생활건강 '오휘' 화장품 포장재에 첫 적용



▲ 폐의류를 이용해 만든 무림의 '네오코튼TMB'이 적용된 '오휘' 포장재

폐의류가 화장품 포장재로 재탄생했다.

펄프·제지·신소재 기업 무림(대표 이도균)은 버려진 의류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포장용지 '네오코튼TMB'를 개발해 LG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 '오휘'에 첫 적용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버려진 잡지, 신문 등을 종이 원료로 재사용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폐의류를 활용해 만든 종이는 국내 최초다.

네오코튼TMB는 헌 옷에서 면섬유들을 분리, 작은 조각으로 분쇄 후 천연 펄프와 혼합해 만든다. 이는 그간 업계에서 한번도 시도된 적 없는 혁신

적인 종이 제조 방식으로 무림의 독보적인 친환경 종이 기술력과 노하우 덕분에 실현이 가능했다.

매립이나 소각 시 유해물질 발생으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의류 폐기물을 종이와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자원순환을 실천하면서 '업사이클링 종이'라는 친환경 종이의 또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네오코튼TMB 제품은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겸비했다. 식물성 소재인 목화에서 추출한 면섬유를 종이 원료로 사용해 환경친화적인 것은 물론 일반 종이 대비 질기고 쉽게 찢어지지 않아 내용물을 보호하는 포장재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네오코튼TMB는 LG생활건강 럭셔리 브랜드 '오휘'의 '얼티밋 핏 진 쿠션' 면세점 제품 포장에 첫 적용되며, 무림은 이번 국내 화장품 업계 리더 기업과 협업을 통해 또 한번 친환경성과 제품력을 입증받게 됐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얼티밋 핏 진 쿠션은 실제 데님 패브릭을 제품 용기에 적용한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했다"며 "데님 소재의 제품 용기와 헌 옷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종이 포장재의 접목으로 패셔너블한 디자인에 친환경 가치까지 더해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했다.

류신규 무림 영업부장은 "네오코튼TMB는 자원순환 가치를 실천하는 동시에 우수한 강도와 색재현성까지 갖춰, 제품 보호는 물론 고급스러운 패키징 구현에 최적화된 친환경 종이"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제품들을 지속 선보여 종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HD현대케미칼-CJ제일제당

## 친환경 바이오 납사 생산

국내 최초 ISCC 인증 획득

HD현대케미칼이 CJ제일제당과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 납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나선다. HD현대케미칼은 바이오 원료 400톤을 초도 투입해 올해 말까지 1만2,000톤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지난 달 7일 충남 대산 HD현대케미칼 본사에서 친환경 바이오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으로부터 대두유,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HD현대케미칼은 공급받은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바이오 납사를 만들고, 바이오 납사로 생산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다시 CJ제일제당에 공급한다. 친환경 플라스틱은 CJ제일제당의 간편 가정식 용기와 포장재 등에 활용된다.

HD현대케미칼이 생산하는 바이오 납사와 플

라스틱 제품은 전 과정 ISC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들이다.

ISCC 인증은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원료부터 공정, 최종 제품까지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CJ제일제당과 HD현대케미칼 모두 인증을 취득해 국내 최초로 ISCC 인증된 친환경 바이오 납사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원료 투입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까지 생산 전 과정 ISCC 인증을 받았다”며 “바이오 납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 화학사와 달리 바이오 납사 생산부터 완제품 공급에 이르는 전체 생산 과정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 “자원의 선순환은 ESG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국내 기업 간 협력으로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원료를 공급해 다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간 자원 선순환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수퍼빈

## 삼양패키징에 재생원료 공급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및 확대 MOU 체결

순환경제 스타트업 수퍼빈은 지난달 23일 삼양그룹 패키징 계열사 삼양패키징과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오른쪽)와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



▲ 수퍼빈 아이엠팩토리 전경

수퍼빈은 직접 생산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삼양패키징에 공급한다. 삼양패키징은 수퍼빈에서 공급받은 재생원료를 사용해 페트병을 생산하고 연구한다.

삼양패키징은 국내 아셉틱·페트 용기 선두기업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재활용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삼양에코테크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리사이클 페트칩 생산 설비 구축을 마쳤다.

수퍼빈은 ICT기술을 활용해 직접 PET병을 수거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사업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협력이 필요하다”며 “각자의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낸다면, 높아지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비율에 발맞춰 국내 재생원료 시장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삼양패키징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재생원료를 활용한 페트병 생산에 속도를 높이고 앞으로 양사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삼양패키징

### 제10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국내 1위 페트 패키징 리더십 강화”

삼양그룹 패키징 계열사인 삼양패키징이 지난 달 20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10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삼양패키징은 2023년 매출 4,217억 원, 영업이익 325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며, 제1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보통주 1주당 500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김재홍 삼양패키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원료가격의 불안정성 높아지고 시장 경쟁이 심화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셉틱 6호기의 성공적인 증설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며 “올해도 견고한 매출 성장 구조를 갖춰 내실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환경 재활용 소재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 국내 1위 페트 패키징 업체로서 리더

### (주)삼양패키징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지난달 20일 열린 삼양패키징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재홍 대표이사가 발언하는 모습



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 "리사이클링 원료에 대한 사용 의무화가 확대되는 등 친환경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다"며 "삼양에코테크의 재활용 설비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식약처 친환경 인증 취득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시장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태림포장

### 골판지 원단 제2생산공장 준공

연간 1억9,000만 m<sup>2</sup> 생산 가능

글로벌세아 그룹 계열사인 태림포장(대표이사 이복진)은 태림포장은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청원캠퍼스2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글로벌세아 그룹 김웅기 회장을 비롯해 태림포장 이복진 대표이사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청원캠퍼스2는 대지면적 7만6,000m<sup>2</sup>에 연면적 4만340m<sup>2</sup>의 대규모로 새롭게 지어진 골판지 원단 생산공장이다. 약 2년간의 공사기간과 62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억9,000만m<sup>2</sup>의 골판지 원단을 생산할 수 있어 단일 설비로는 최대 생산능력을 자랑한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골판지 원단 최대 폭 2,800mm까지 생산 가능한 최첨단 설비가 업계 1호로 도입됐다.

이미 청원캠퍼스2공장은 지난해 12월 생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청원캠퍼스1과 함께 청원공장에서만 연간 약 5억m<sup>2</sup>의 골판지 원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태림포장 관계자는 "이번에 준공된 청원캠퍼스2 공장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국내 유일무이한 골판지 원단 생산공장으로 설계됐다"며 "대한민국 골판지업계 1위 기업으로서 격차를 넓히겠다는 태림포장의 의지가 담겼다"라고 전했다.

## KCC

### 유리장섬유 부산물 활용 신소재 개발

'깨끗한 나라' 물티슈 캡에 적용

KCC(대표 정재훈)는 지난달 19일 유리장섬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만든 분말과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석밥 용기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리장섬유를 생산하는 KCC 세종공장 개발팀은 상품 제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 부산물 정제를 통해 '에코스노우(EcoSnow)'라고 이름 붙인 가공분말과 즉석밥 용기(PP)를 배합했을 때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성형 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ECOmpound)는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신소재는 먼저 '깨끗한 나라' 생분해 물티슈 뚜껑(캡)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플라스틱 상품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